

삼성SDI (006400)

이차전지



최영산

02 3770 5728
yungsan.choi@yuantakorea.com

투자 의견	BUY (M)
목표주가	250,000원 (D)
현재주가 (5/21)	210,000원
상승여력	19%

시가총액	145,776억원
총발행주식수	70,382,426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749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337,285주
52주 고	261,000원
52주 저	198,000원
외인지분율	43.19%
주요주주	삼성전자 외 7인 20.58%

주가수익률(%)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8.5)	(13.8)	6.1
상대	(1.6)	(6.8)	26.9
절대(달러환산)	(12.9)	(18.7)	(3.6)

기업의 확실한 이익 확보 전략 vs. 시장의 기대

전자재료와 소형전지 리스크는 이상 무

삼성SDI(이하 동사)의 올해 실적은 1) 2분기부터 시작되는 해외 ESS 부분 출하와 하반기 예상되는 국내 ESS 정상화, 전자재료 및 소형전지 성장세 지속으로 인해 올해 매출액은 10.7조원(YoY +17%), 영업이익 8,190억원(YoY +15%)로 예상된다. 중대형 전지는 올해 하반기 턴어라운드할 것으로 예상되며, EV향은 올해까지 적자 추세가 지속, 내년부터 본격적인 적자폭 축소에 돌입, 4Q20 분기 흑자전환이 목표인 상황으로 보인다. 중대형 배터리 내 ESS 비중이 50%수준 이기 때문에, ESS의 불확실성 해소 및 국내 신규 수주 가시화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SDI가 바라보는 EV 배터리 사업: 확실한 수익, 높은 가동률

당사가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방문하여 배터리 사업과 중장기 EV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각 업체들의 의지와 전략을 파악한 결과, 동사는 1) EV시장 확대에 대해선 의구심이 없으나, 2) 배터리 셀 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가동률 확보나 수익성 확보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있으며, 3)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CAPA 만을 확보하여 높은 가동률을 유지한 상태에서 확실한 수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결국, EV 배터리 시장은 최소 2025년 전까지는 과점화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적당량의 CAPA로 확실한 가동률, 고수익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은 기업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들린다. 기술력은 Top tier 수준으로 유지한 상황에서, 시장 확장 속에서의 이익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미이다.

12M Fwd P/B 박스권 돌파는 아직

산업에 대한 view를 중장기적으로 명확하게 확장해야 할 시점에 도래했다. EV 배터리 시장이 'High Risk, High Return'의 산업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CAPA와 대량의 수주잔고를 확보한 업체와, 적당량의 CAPA와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는 업체에게 프리미엄을 줄 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22년 시점에 LGC와 SKI가 대량의 CAPA 확보 이후에도 높은 가동률과 수주를 확보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2 업체에게 프리미엄을 주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확실한 이익 확보 전략을 사용하는 동사에게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과거 동사가 받았던 고점 12M Fwd P/B 1.3x는 당시 EV배터리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시장 전망과 동사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시점이었다.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 때 대비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기에 당시 대비 높은 멀티플 부여는 어렵다. 다만, 4Q20 EV 흑자전환을 보고 현재 박스권 하단 수준인 밸류에이션이 천천히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주가는 12N Fwd BPS에 Target P/B 상단 1.3x를 적용, 250,000으로 소폭 하향 조정한다.

	2Q19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25,112	11.7	9.0	23,939	4.9
영업이익	1,656	8.3	39.2	1,484	11.5
세전계속사업이익	1,316	-6.8	86.4	1,022	28.9
지배순이익	987	-7.4	96.4	836	18.2
영업이익률 (%)	6.6	-0.2 %pt	+1.4 %pt	6.2	+0.4 %pt
지배순이익률 (%)	3.9	-0.8 %pt	+1.7 %pt	3.5	+0.4 %pt

자료: 유안타증권

	결산 (12월)	2017A	2018A	2019F	2020F
매출액		63,466	91,583	107,013	124,046
영업이익		1,169	7,150	8,187	9,930
지배순이익		6,572	7,012	7,560	9,058
PER		17.6	21.0	21.3	17.8
PBR		1.0	1.2	1.2	1.2
EV/EBITDA		20.7	12.9	9.9	9.0
ROE		6.0	6.0	6.2	6.9

자료: 유안타증권

[표 1] 삼성 SDI 분기별 실적 추이

(단위: 십억원)

	1Q18	2Q18	3Q18	4Q18	1Q19	2Q19F	3Q19F	4Q19F	2017	2018	2019F	2020F
매출액	1,909	2,248	2,526	2,479	2,304	2,511	2,952	2,935	6,322	9,161	10,701	12,405
YoY(%)	46%	55%	48%	34%	21%	12%	17%	18%	22%	45%	17%	15.9%
전지 사업부	1,419	1,729	1,927	1,882	1,753	1,915	2,304	2,296	4,304	6,957	8,268	9,741
중대형 전지	540	807	780	739	641	784	1,057	1,070	1,375	2,866	3,551	4,636
EV	293	341	344	375	407	408	576	582	890	1,352	1,972	2,828
ESS	247	466	437	365	234	376	481	488	485	1,514	1,579	1,808
소형전지	879	922	1,147	1,142	1,111	1,131	1,248	1,226	2,929	4,090	4,716	5,105
전자재료	490	519	599	597	551	596	647	639	2,017	2,204	2,434	2,663
영업이익	72	152	242	249	119	166	252	282	117	715	819	993
YoY(%)	흑전	2679%	302%	110%	65%	9%	4%	13%	흑전	511%	15%	21.3%
OPM	4%	7%	10%	10%	5%	7%	9%	10%	1.8%	7.8%	7.7%	8.0%
중대형 전지	-55	0	-14	-29	-72	-41	-7	2	-257	-98	-119	36
소형전지	79	85	169	179	122	141	168	178	148	512	610	607
전자재료	48	67	87	99	69	66	91	102	225	301	328	350
영업이익률	3.8%	6.8%	9.6%	10.1%	5.2%	6.6%	8.5%	9.6%	1.8%	7.8%	7.7%	8.0%
중대형 전지	-10%	0%	-2%	-4%	-11%	-5%	-1%	0%	-19%	-3%	-3%	1%
소형전지	9%	9%	15%	16%	11%	13%	14%	15%	5%	13%	13%	12%
전자재료	10%	13%	15%	17%	13%	11%	14%	16%	11%	14%	13%	13%
지배주주순이익	125	107	215	254	50	99	287	319	643	701	756	1,227
YoY(%)	55.0%	-44.8%	47.4%	7.0%	-60.0%	-7.5%	33.7%	25.6%	205.0%	9.0%	7.8%	62.4%
NPM	6.6%	4.7%	8.5%	10.3%	0.7%	3.9%	9.7%	10.9%	10.2%	7.7%	7.1%	9.9%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SDI 캔타입 vs. LGC 파우치: 각자의 장단이 있을 뿐, 결국엔 동일지점에 도달

에너지 밀도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각형 배터리는 젤리롤 형태로 와인딩하는 공정을 거치고, 파우치는 스택형의 쌓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셀당 에너지 밀도는 파우치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형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대량 생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더 높은 에너지 밀도가 요구되는 고스펙 전기차 대상으로는 파우치보다 안전성이 높고, 또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당사는 산업부문에서도 언급하였듯, 여차피 증장기적으로 2023년 수준이 되면 과점화된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 격차가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기술 발전은 방식의 차이이지, 기술력의 차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SDI가 NCA를 하는 이유는 동사가 기존에 잘해왔던 소형전지에서의 NCA기술을 그대로 EV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이며, LGC나 SKI가 추구하는 NCM8시리즈 대비 출력은 더 좋고, 안전성은 소폭 하락한다. 여차피 SDI의 셀 타입이 각형이기 때문에, 양극재의 불안전성을 셀 타입의 특성이 보충해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NCA나 NCM8시리즈나 역시 결론론적으로는 비슷한 에너지 밀도와 성능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차피 VW의 MEB가 표준화된 모듈을 제공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각형이든 파우치형이든 상관없이, NCA든 NCM이든 상관없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 기술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량 에너지 밀도 300~350 Wh/kg, 부피 에너지 밀도 700~800Wh/L, 1회 충전시 주행거리 500km' 까지 모두 각자의 방식을 통해 도달한다고 봐야 한다.

[그림 1] 삼성 SDI 12M Fwd P/B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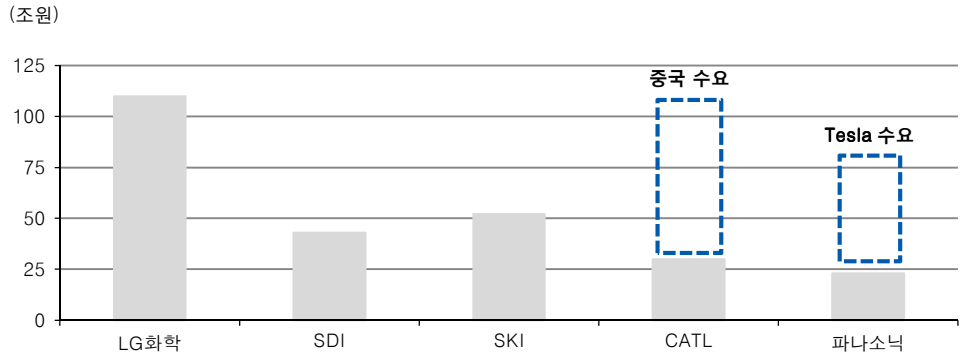
또한 동사의 강점이라고 본다면, 사실 각형과 원통형 EV에 모두 대응가능한 업체이며, 특히 원통형 NCA 쪽으로는 파나소닉에 이어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을 올해 연말~내년 초에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공급자를 중국 업체들(리전, CATL)로 1차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만약 한국 배터리 3사에서 공급자를 찾게 되었을 때는 동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확신한다. 아무리 LGC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원통형 NCA에서만은 동사의 벤더 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반박하기 어렵다. 각자의 장점이 있을 뿐, 모든 면에서 한 업체가 가장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시장이다.

반면 동사의 약점은 배터리 제조와 관련된 화학 등의 비즈니스를 LGC나 SKI와 달리 확보하고 있지 않기에, 내재화 속도(LGC - 양극재, SKI - 분리막)가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다. 현재 양극재 내재화 일부를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큰 비중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자체 화학 비즈니스가 다소 부족한 점은, 타사 대비 좀 더 높은 cost leadership 확보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이 동사가 고수익성을 추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SDI가 뛰어나냐 LGC가 뛰어나냐 시장의견이 많은데, 당사는 현재시점에서는 LGC가 좀 더 뛰어나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SDI가 스택 공정 등을 추가하여 파우치 공정의 장점을 가져오려고 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제시하였듯, 각 배터리 형태의 장단점(각형이 더 안전하고, 더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이 있고, 각 배터리 셀 업체들이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려 할 것이기에, 결국에는 동일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결국 비슷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게될 국내 배터리 3사를 비교할 때 중요한 것은 1) 산업을 보는 시각과, 2) 이에 대한 수주 확보 의지, 3) cost reduction을 얼마나 할 수 있는냐가 중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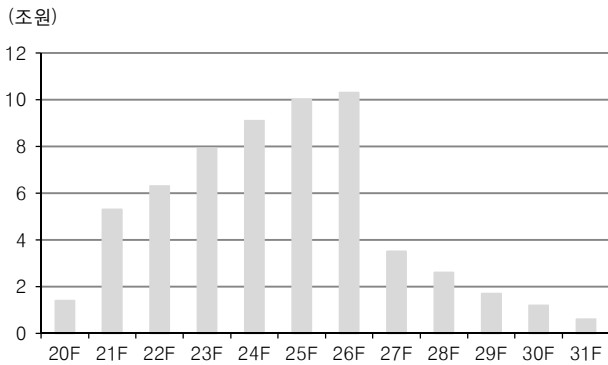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록 SDI는 2025년 Top tier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출하량 기준 Top 3에 들기는 확실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약이라도 EV 시장이 2025년 시장 예상과 달리 다소 보수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을 때는, LGC와 SKI가 부족한 가동률에 고정비 부담에 시달릴 때, SDI만이 높은 가동률과 확실한 이익을 챙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글로벌 Top 5 개사 수주 규모 비교 (2019.05 업데이트, 유안타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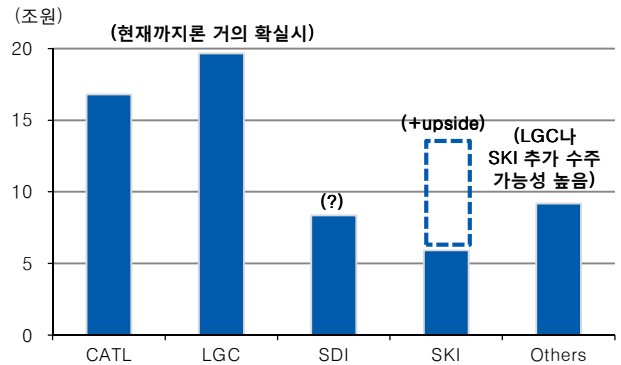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VW MEB 프로젝트 연도별 수주 규모 예상 (19~31년까지 총 60 조원, 150GWh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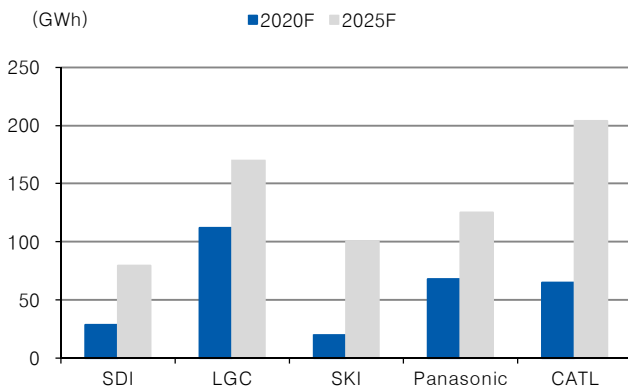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MEB PJT 업체별 수주 규모 예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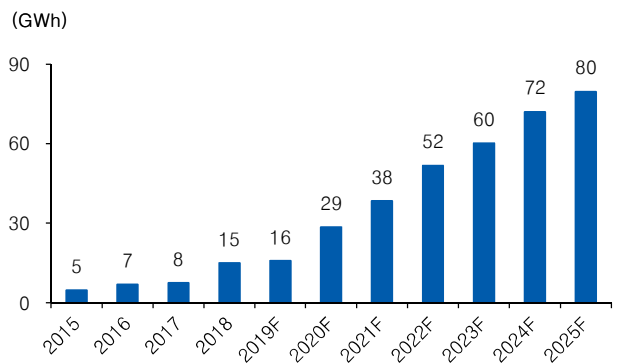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Top 5 CAPA 비교 2020 vs. 2025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삼성 SDI 중대형 배터리 CAPA 추정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2] 글로벌 중대형 배터리 CAPA 정리

(단위: GWh)

	2015	2016	2017	2018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2024F	2025F
SDI	4.7	6.9	7.5	14.9	15.8	28.5	38.4	51.7	60.2	72.0	79.6
LGC	6.8	8.0	20.0	38.0	82.0	112.0	123.0	135.0	150.0	160.0	170.0
SKI	1.0	1.0	2.1	4.7	4.7	19.7	25.3	60.1	70.3	85.3	100.3
국내 Total	12.5	15.9	29.6	57.6	102.5	160.2	186.7	246.8	280.5	317.3	349.9
CATL	2.5	7.2	15.0	28.0	44.0	65.0	94.0	125.0	150.0	187.0	204.0
Optimum	3.0	3.0	15.0	15.0	0.0	0.0	0.0	0.0	0.0	0.0	0.0
BYD	6.0	7.0	16.0	28.0	48.0	60.0	69.0	75.0	80.0	85.0	90.0
Lishen	1.5	3.3	11.7	22.0	28.0	29.4	34.4	49.2	52.0	55.1	58.5
Guoneng	1.0	1.6	4.0	8.0	14.0	25.0	25.0	30.0	35.0	35.0	35.0
Guoxuan	2.0	2.0	8.8	11.4	15.2	23.0	24.5	25.8	27.1	28.4	29.8
BAK	0.6	2.5	8.0	12.0	15.0	15.0	16.5	18.2	20.0	22.0	24.0
etc	21.7	39.1	63.3	112.9	96.0	81.6	69.3	58.9	50.1	42.6	36.2
China Total	38.3	65.7	141.8	237.3	260.2	299.0	332.7	382.1	414.2	455.1	477.5
Panasonic	10.0	10.0	15.0	48.0	51.0	68.0	75.0	85.0	100.0	115.0	125.0
Others	8.2	8.6	8.6	8.6	9.5	16.4	16.9	17.1	20.1	21.4	21.4
Japan Total	18.2	18.6	23.6	56.6	60.5	84.4	91.9	102.1	120.1	136.4	146.4
Litec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Batscap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Tesla						10.0	20.0	30.0	35.0	35.0	35.0
NorthVolt						8.0	16.0	24.0	32.0	32.0	48.0
Terra E						10.0	10.0	20.0	20.0	20.0	27.0
Europe Total	1.2	1.2	1.2	1.2	1.2	29.2	47.2	75.2	88.2	88.2	111.2
World Total	70.2	101.4	196.2	352.7	424.4	572.8	658.5	806.2	903.0	997.0	1085.0

[표 3] 핵심업체별(Top 5) CAPA 정리

(단위: GWh)

	2015	2016	2017	2018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2024F	2025F
SDI	4.7	6.9	7.5	14.9	15.8	28.5	38.4	51.7	60.2	72.0	79.6
LGC	6.8	8.0	20.0	38.0	82.0	112.0	123.0	135.0	150.0	160.0	170.0
SKI	1.0	1.0	2.1	4.7	4.7	19.7	25.3	60.1	70.3	85.3	100.3
Panasonic	10.0	10.0	15.0	48.0	51.0	68.0	75.0	85.0	100.0	115.0	125.0
CATL	2.5	7.2	15.0	28.0	44.0	65.0	94.0	125.0	150.0	187.0	204.0
Top 5 Total	25.0	33.1	59.6	133.6	197.5	293.2	355.7	456.8	530.5	619.3	678.9
Top 5 % of World	35.6%	32.6%	30.4%	37.9%	46.5%	51.2%	54.0%	56.7%	58.7%	62.1%	62.6%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시는 업체별 가능성 높은 CAPA 목표치

삼성 SDI (006400) 추정재무제표 (K-IFRS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결산 (12월)	2016A	2017A	2018A	2019F	2020F
매출액	52,008	63,466	91,583	107,013	124,046
매출원가	44,503	51,808	71,182	82,698	95,488
매출충이익	7,506	11,658	20,401	24,315	28,558
판매비	16,769	10,490	13,251	16,128	18,628
영업이익	-9,263	1,169	7,150	8,187	9,930
EBITDA	-4,713	5,768	12,972	16,840	19,794
영업외손익	1,056	7,072	3,213	2,115	2,408
외환관련손익	-230	152	-445	0	0
이자손익	-23	-49	-336	-442	-684
관계기업관련손익	2,452	6,954	3,422	2,120	3,117
기타	-1,142	15	572	437	-2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207	8,241	10,362	10,302	12,337
법인세비용	578	1,809	2,912	2,238	2,660
계속사업순이익	-8,785	6,432	7,450	8,064	9,677
중단사업순이익	10,896	0	0	0	0
당기순이익	2,111	6,432	7,450	8,064	9,677
지배지분순이익	2,194	6,572	7,012	7,560	9,058
포괄순이익	-111	6,370	7,963	8,064	9,677
지배지분포괄이익	211	6,851	7,484	7,850	9,423

주: 영업이익의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결산 (12월)	2016A	2017A	2018A	2019F	2020F
유동자산	39,583	35,846	55,193	63,578	61,804
현금및현금성자산	10,117	12,090	15,166	18,833	11,04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9,295	11,291	16,317	19,601	22,746
재고자산	7,291	9,666	17,457	18,889	21,760
비유동자산	109,420	121,571	138,304	142,686	158,507
유형자산	25,038	29,303	46,083	59,148	69,805
관계기업 등 지분관련자산	55,256	62,193	65,546	71,232	76,919
기타투자자산	16,319	17,892	15,187	1,536	1,536
자산총계	149,003	157,417	193,497	206,264	220,312
유동부채	22,128	26,641	40,128	44,224	47,72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4,771	13,259	19,820	20,706	21,928
단기차입금	1,840	7,681	14,897	18,108	20,381
유동성장기부채	1,999	3,112	2,496	2,496	2,496
비유동부채	17,234	16,256	31,117	32,897	35,061
장기차입금	2,673	2,455	8,260	10,041	12,204
사채	2,993	998	6,882	6,882	6,882
부채총계	39,362	42,897	71,245	77,121	82,781
지배지분	107,221	112,573	119,340	126,230	134,619
자본금	3,567	3,567	3,567	3,567	3,567
자본잉여금	50,312	50,427	50,379	50,379	50,379
이익잉여금	49,947	56,006	66,125	73,015	81,404
비지배지분	2,420	1,947	2,912	2,912	2,912
자본총계	109,641	114,520	122,252	129,142	137,531
순차입금	-9,758	1,205	16,155	17,478	29,705
총차입금	9,698	14,448	32,835	37,826	42,263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결산 (12월)	2016A	2017A	2018A	2019F	2020F
영업활동 현금흐름	-13,095	-2,501	2,606	13,259	14,285
당기순이익	2,111	6,432	7,450	8,064	9,677
감가상각비	3,605	3,693	4,912	7,935	9,343
외환손익	-12	-353	387	0	0
종속, 관계기업 관련손익	-2,452	-6,954	-3,422	-2,120	-3,117
자산부채의 증감	-14,129	-8,413	-9,792	-1,208	-2,007
기타현금흐름	-2,218	3,094	3,071	587	389
투자활동 현금흐름	18,543	893	-17,047	-21,252	-20,364
투자자산	38	0	0	0	0
유형자산 증가 (CAPEX)	-8,326	-9,915	-21,461	-21,000	-20,000
유형자산 감소	793	344	37	0	0
기타현금흐름	26,037	10,464	4,377	-252	-364
재무활동 현금흐름	-8,187	3,534	17,561	4,382	3,829
단기차입금	-1,086	6,158	6,870	3,210	2,273
사채 및 장기차입금	-4,321	-1,020	11,317	1,780	2,164
자본	0	0	0	0	0
현금배당	-727	-700	-717	-717	-717
기타현금흐름	-2,053	-904	91	109	110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23	47	-44	7,279	-5,541
현금의 증감	-2,763	1,973	3,076	3,668	-7,790
기초 현금	12,880	10,117	12,090	15,166	18,833
기말 현금	10,117	12,090	15,166	18,833	11,043
NOPLAT	-9,916	1,169	7,150	8,187	9,930
FCF	-27,821	-12,816	-20,290	-7,147	-4,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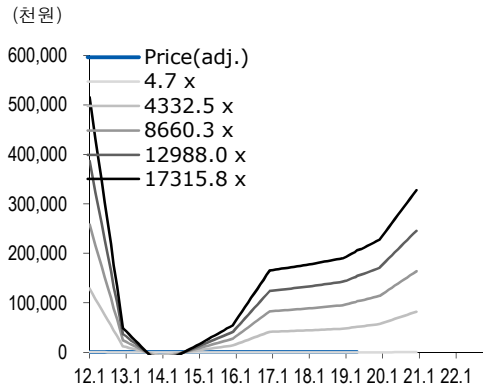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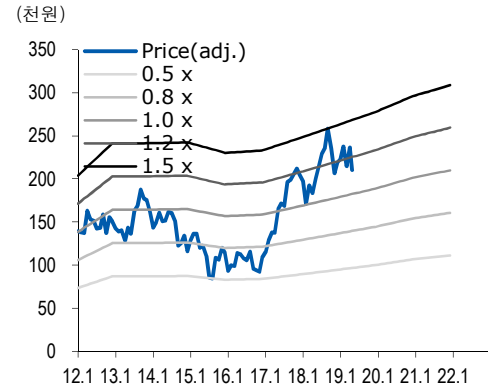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 (12월)	2016A	2017A	2018A	2019F	2020F
EPS	3,168	9,536	10,175	10,972	13,150
BPS	158,605	168,339	178,459	188,762	201,306
EBITDAPS	-6,697	8,195	18,431	23,926	28,124
SPS	73,894	90,173	130,122	152,045	176,246
DPS	1,000	1,000	1,000	1,000	1,000
PER	32.7	17.6	21.0	21.3	17.8
PBR	0.7	1.0	1.2	1.2	1.2
EV/EBITDA	-13.7	20.7	12.9	9.9	9.0
PSR	1.4	1.9	1.6	1.5	1.3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 (12월)	2016A	2017A	2018A	2019F	2020F
매출액 증가율 (%)	5.0	22.0	44.3	16.8	15.9
영업이익 증가율 (%)	적지	흑전	511.6	14.5	21.3
지배순이익 증가율 (%)	307.5	199.6	6.7	7.8	19.8
매출총이익률 (%)	14.4	18.4	22.3	22.7	23.0
영업이익률 (%)	-17.8	1.8	7.8	7.7	8.0
지배순이익률 (%)	4.2	10.4	7.7	7.1	7.3
EBITDA 마진 (%)	-9.1	9.1	14.2	15.7	16.0
ROIC	-22.4	2.2	8.9	8.1	8.3
ROA	1.4	4.3	4.0	3.8	4.2
ROE	2.0	6.0	6.0	6.2	6.9
부채비율 (%)	35.9	37.5	58.3	59.7	60.2
순차입금/자기자본 (%)	-9.1	1.1	13.5	13.8	22.1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26.4	5.1	13.8	10.4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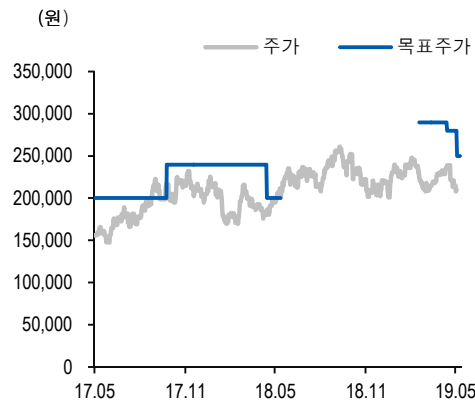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삼성 SDI (00640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19-05-22	BUY	250,000	1년		
2019-05-02	BUY	280,000	1년	-20.74	-14.64
2019-03-07	BUY	290,000	1년	-23.96	-18.45
담당자 변경					
2018-05-03	HOLD	200,000	1년	12.80	-
2018-01-08	HOLD	240,000	1년	-16.35	-
2017-10-12	BUY	240,000	1년	-11.96	-3.13
2017-06-27	BUY	200,000	1년	-6.19	11.50
2017-04-10	BUY	170,000	1년	-11.82	1.47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5
Buy(매수)	86.5
Hold(중립)	13.0
Sell(비중축소)	0.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19-05-19

※해의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최영산)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